

해남, 현군수 대 단일후보...함평, 2파전이나 3자 대결이나

해남군수

명현관, 현직 프리미엄 업고 3선 도전
'반(反) 명현관' 민주당 후보들 출사표
혁신당, 3선 군의원 서해근 출마 유력



명현관



김병덕



김성주



서해근



이Geom

해남군수 선거는 명현관(63) 현 군수의 3선 도전에 타 후보 군들의 '반(反) 명현관' 결집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명 군수의 3선 도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후보가 자전타전 거론되면서 향후 이들의 단일화 여부가 민주당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명 군수는 아직까지 3선 도전을 공식화 하지는 않았지만, 3선 도전이 유력하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민선 7·8기 해남군수를 역임한 명 군수는 임기동안 해남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군수 임기 동안 모든 월급을 반납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특히 최근 SK그룹과 오픈AI 합작 데이터센터,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대규모 첨단 사업의 해남 유치에 진행되면서 명 군수의 지지세도 오르는 모양새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임기동안 지역 내 다양한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지역민의 신뢰가 두터운다는 평가도 나온다.

명 군수의 3선 도전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후보가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병덕(56) 전 해남군의회 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장은 재선 군의원으로 지역 사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Geom(59) 해남군체육회장도 표심을 다지고 있다. 이 회장

해남군 수협조합장을 세 차례 지낸 김성주(66) 전 조합장도 해남군수 도전이 예상된다. 오랜기간 조합장을 역임했지만, 지역 내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게 지역 정치권 분석이다.

명현관 현 군수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의 입지자의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면서 당내 경선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에서는 3선 군의원 출신의 서해근(69)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해남군 공무원 출신으로 7~9대 해남군의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30여년의 공직 경험과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표심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자와 조국혁신당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함평군수

이상익, 사법 리스크 안고 3선 도전
민주당 공천 결과 따라 선거 판도 변수
이운행 전 군수, 혁신당 후보로 출마



이상익



이운행



정정희



조성철

내년 함평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따른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는 3선 도전에 나선 이상익(69) 현 군수에 맞서 지역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의 본선 경쟁도 예상된다.

이상익 현 군수는 3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표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7기 군수에서 승리한 이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형 국책사업과 지역 핵심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민주당 내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이다. 이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는 12월 2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2심 결과에 따라 민주당 당내 경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군수와 당내 경선에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2명으로, 먼저 조성철(5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조 부의장은 운동권 출신으로, 강한 중앙정치 인맥 등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으로 꼽힌다. 조 부의장은 광주지역 구청

장 출마를 고심하다 고향인 함평군수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희(59) 전 전남도의원도 함평군수에 도전한다. 정 전 도의원은 함평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영광·함평·담양) 국회의원과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입지자들 모두 경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권을 쥐는 후보자가 누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운행(59) 전 함평군수의 출마가 예상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함평군수 선거에서 승리한 이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임기 2년만에 군수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높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선거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함평군수 선거는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라 전·현직 군수의 2파전 혹은 이상익 군수의 무소속 출마로 3자 대결 판도가 그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분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광주시, 전국 첫 '기업 RE100 연계 영농형 태양광' 시동

분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

친환경 에너지 전환·농가소득 안정 실행

광주시가 기업의 RE100(재생 에너지 100%)이행과 농민의 안정소득을 동시에 겨냥한 전국 첫 '기업 RE100 연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두 축을 함께 세우며 도시와 농가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분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광산구 북산동 일원 20만㎡ 농지에 10MW 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해 생산 전력을 인근 기업에 공급하는 모델을 공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상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같은 토지에서 농업과 친환경 전력을 병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기후에너지전환원이 주관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민 햇빛연금 기본소득'의 현장 실행 무대라는 의미도 갖는다.

출범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균택 국회의원, 신수정 시의회 의장,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지역 농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관협의회는 에너지전환

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의 복잡한 갈등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농민 중심의 모범적 영농형태양광 모델을 만드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 분량동 일원 농지 약 20만㎡에 1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인근 산업단지 기업에 공급돼 기업의 RE100 달성을 돕는 전국 최초의 상생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농민 주도형'으로 기획됐으며,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

분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이득룡 위원장은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고 농민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분량동 주민을 비롯해 정부 부처, 광주시, 광산구, 사·구의원 등이 참여해 사업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핵심 기구로 활동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영농법인 설립 지원 등 정부 정책 참여를 위한 전방위적 행정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농가에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RE100 이행 수단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기회"라며 "농민이 주도하는 민관협의회가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을 광주가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장성에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이달 중 착공...사업비 3959억원 투입

전남도는 5일 "사업비 3959억원 규모의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로 모던트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등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성 검토를 완료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방 재정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적으로 7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전남도에서는 '여수 묘도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사업'에 이어 두번째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장성 남면 첨단3지구 부지에 26Mw(메가와트)급 규모의 데이터센터 1기를 구축한다.

데이터센터에는 약 400평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지역 기업 대상 공유오피스를 제공하고, AI·클라우드 분야 교육과 전문가 양성 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350평 면적에 지역 주민을 위한 풋살장 등 지역 사회와의 상생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올 10월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412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두 개의 정책펀드에 동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준공 시까지 지속 지원해 전남이 AI·데이터 산업 거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역대 최고 매출' 광주김치축제

'민생 회복 축제'로 자리매김

3일간 매출 10억·방문객 5만 7000명 기록

광주시의 대표 가을 축제가 '판매 실적'과 '체험 만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청 일원에서 열린 제32회 광주김치축제에 5만7000여 명이 몰렸고, 현장 매출은 10억 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우주최광(光) 김치파티'를 주제로 시청 앞 도로를 과감히 '차 없는 거리'로 전환했다.

김치마켓과 농산물마켓을 입구 동선에 전면 배치하고 체류 공간을 촘촘히 나눠 대기열을 분산한 결과, 방문객 흐름이 부드럽게 유지되고 구매 전환율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실제 대통령상 수상 김치와 전통시장 김치, 품질인증 제품은 첫날부터 긴 줄이 이어지며 조기 매진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유명 가수 없이 '천인의 밥상' '김치마켓' '푸드쇼' 등 핵심 프로그램을 강화해 콘텐츠의 밀도를 높였고, 체험과 시식, 구매로 이어지는 폐곡(閉廊)형 소비 동선을 구축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참여를 넓히고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허용해 실구매를 자극한 것도 현장의 활기로 연결됐다.

축제 기간 판매액 10억 3800만 원은 전년 대비 26.7% 증가한 규모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